

‘자랑스런 시민상’ 받아

김윤환 영광도서 대표 ‘대상’ 영예

부산 영광도서 김윤환 대표(부산 불교실업인회)가 자랑스러운 시민상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10월 5일 제30회 부산시민의 날 기념식에서는 부산시민 7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12명의 시민에게 ‘자랑스러운 시민상’이 수여됐다.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기념식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부산시민현장 낭독, 자랑스런시민상 시상, 허남식 부산시장 기념사, 제중모 시의 회오리 춤사위, 시립합창단 축하공연 등이 1시간 동안 이어졌다.

김윤환 대표는 “이 상은 앞으로 더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라 생각하고, 부산발전과 부산 시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할



김윤환 대표

것을 약속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대표는 부산의 대표문화공간인 영광도서를 창립하고 4년간 일궈왔다. 부산을가꾸는모임 공동대표, 향토사랑시민연합 공동대표, 부산시 새마을 회장, 목요

학술회 부회장등 시민단체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왔다. 불자로서 부산불교실업인회장으로 목실한 신행활동과 불법종교로 부산 불교계를 이끌고 있다. 한편, 부산시민의 날은 임진왜란 당시 부산포(최충동-문현동 앞바다)에서 있었던 부산포해전의 승전일을 기념하기 위해 1980년 10월 5일 제1회 행사를 시작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박지원 기자

가을 ‘차문화’에 흠뻑 빠지다

19일, 제4회 부산국제 차어울림문화제 개막

부산의 수준 높은 차문화와 차향을 전 세계에 알리는 제4회 부산국제 차어울림문화제가 10월 문화의 달을 맞아 열린다.

10월 19일 국립 부산국악원에서 열리는 행사는 소극장 예지당과 옥외 어울림마당 등 부산국악원 일대에서 펼쳐진다. 오전 10시 30분 부산시 차 정신문화의 근간을 마련한 4대대인 금당 최규홍(백운 옥판자의 목각본 발굴), 목춘 구혜경(부산 차문화보급의 선구자), 다촌 정상구(부산어자대학 차박물관 설립), 원광 스님(‘차심’ 창간사) 등에 대한 추모헌공차례를 시작으로 11시 개막식, 다촌 선비차례 · 주심차례 · 일본차례 · 명상선차 · 오방차례 · 중국 복건성 오통차례, 궁중 연회차례 등 각기 다른 차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온 국내 다회별 차법 및 외국의 차법이 소개된다. 뿐만 아니라 옥외 어울림마당 전층에서는 연지초고 어린이들의 효도 차올리기, 외국 대사부인 행차시연 및 체험, 누구나 행차시연 등을 통해 단순한 다도시연 관람에 그치지 않고, 직접 맛보고 만들어 체험할 수 있다. 또, 축제일 정오와 오후 4시에는 각각 가을떡 2000개를 관람객에



지난해 열린 제3회 부산국제차어울림문화제에 참석한 내외빈들의 모습.

게 선착순 무료 증정한다. 문화제를 주최한 부산차문화진흥 연구회(회장 김순향)는 우리의 우수한 차문화가 대중문화 안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부산 차인들의 관심과 열정을 한데 모으기 위해 2007년 발표했다. 부산은 비록 차의 주산지는 아니지만 일찍이 범어사 등을 중심으로 차문화가 발달해, 현재 차소비율은 전국 1위를 차지한다. 이를 증명한 차문화회 활동도 활발하다. 김순향 회장은 “저마다의 차별화된 특색으로 발전해온 여러 다회별 차법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좋은 기

회가 될 것”이라며 “물질만능주의시대의 대중문화에서 소외된 차문화와 다도정신을 되새겨, 차향의 도시 부산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대행사로 ‘아름다운 찾자리 전시’가 예지당 로비에서 소장전 전시로 꾸며지고, 체험마당에서는 차시음 외에도 절하기, 다식만들기, 한복 바로 입기, 행차, 도자기체험, 삼대(조부모, 부모, 자녀) 가족사진 촬영, 차실명(茶室名) 전시 등도 함께 마련된다. (051)809-15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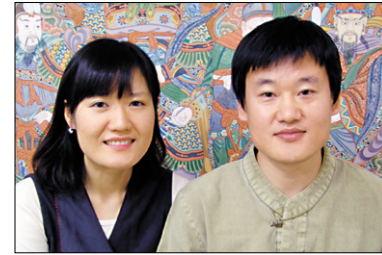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우리지역 부루나존자를 찾아서

불화장 오기웅, 배수정 부부

“저흰 불화 없이는 못살아요”

부부는 용감했다. 한 사람이 평생 단 한번 오르기도 힘든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에서 3년 연속 수상한 부부가 있다. 한 작품을 함께 작업한 게 아니라, 각각 지장보살과 석가모니부처님의 설법을 독특한 화법과 색채로 각각의 화폭에 담아냈다. 중요무형문화재 118호 불화장 커를, 오기웅(38), 배수정(30) 부부가 바로 그들이다.



불화장 오기웅 · 배수정 부부

불화장이자 단청문화재 수리 기술자인 오기웅 씨는 “불화는 제 아무리 빼어난 실력으로 그려도 해도 그 속에 정성과 간절한 마음으로 그려야 비로소 성스러운 부처님의 모습이 깃든다는 것을 알기에 점점 많은 작품을 그려 갈수록 어렵고 힘들어진다”며 스스로를 낮췄지만, 그의 이번 수상작 ‘지장보살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특별함이 숨어있다.

화화안료는 단 한 방울도 섞지 않고, 오직 천연재료만을 사용하는 전통방식을 고수했다. 얼굴색과 피부, 연꽃문양은 수정을 썼고, 탕화 전반의 색이 고운 까닭은 진주로 빛을 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땅 속 암반에서 추출한 천연 석채만을 사용해, 화화안료를 조약하게 섞어 색을 내지 않고도, 수백 년간 변함없을 영원의 색으로 ‘지장보살도’에 생명을 불어넣었다.

이런 옹고집 불화장을 남편으로 둔 아내 배수정 씨 또한 만만치 않다. 대학 때 한국화를 전공하던 중 불화의 매력에 심취해 전문적으로 배웠고, 불화장을 이수한 고수다. 그래서 그녀의 그림 속에는 현대적인 색채와 지극한 심신을 불러일으킬 만큼의 성스

러운, 한국화의 아가자기하고 섬세한 기법이 공존한다. 이번에 수성한 ‘석가모니 설법도’는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예경하는 여러 제자들을 담았는데 어떤 이는 합장을 한 듯하나 몸을 추고, 눈을 감고 꾸벅꾸벅 조는 이도 보인다. 배수정 씨는 “불화가 대학을

가 졸업하고 멍하니 살아가던 내 삶에 경종을 울렸고,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의지와 희망을 심어주었다”며 “그 후 평생 부처님을 그리면서 살던 더 바랄 것 없이 행복할 것 같았다”고 회상했다.

오기웅 씨의 붓끝을 거쳐 간 사찰만 무려 100여 곳이 넘는다. 최근에는 부산 흥법사 새 대웅보전의 전각 등을 조성하기도 했다. 그리고 아내 배수정 씨와 함께 통도사성보박물관에서 탕화강사로 활약했다. 지금은 가락도의 한 사찰 후불탱화를 조성하고 있다. 수많은 탕화를 그리고 단청을 조성해왔지만, 쉽고 빨리 해내려 허투루 입한 적은 없다.

“석채를 사용하면 2-300년은 거뜰히 변함이 없어요. 한번 조성하면 수백, 수천 년간 보존될 탕화인데 싸고 아무거나 쓰면 되나요. 좋은 재료를 바탕으로 그리면 사람의 신심과 한 획 한 획 정성이 들어가야겠지요.”

7년 전 탕화의 매력에 빠졌던 배수정 씨에게 불화를 가르쳐주던 선생님 오기웅 씨는 이제 남편이 되었다. 두 사람 모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라면 부처님을 그리는 지금, 이들 불화장 부부는 생애 가장 행복한 순간을 함께 걸어가고 있다. (055) 905-8089

박지원 기자

천진불 맞이할 ‘환희지’ 열어

해동중 법당 봉불 및 법당 증축 법회 봉행

60여 년 전통의 종립 해동중(교장 손태석)의 오래된 법당이 새 부처님을 모시면서 더 넓고 쾌적한 환경으로 탈바꿈했다.

‘환희지’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문을 연 해동중학교 법당은 기존 20평에서 30평으로 규모부터 커졌다. 은 행나무로 조성한 석가모니불과 불단, 수미단, 좌대, 탕화, 소종 등을 갖춘 법당 규모에 걸맞게 장엄했다. 뿐만 아니라 보다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마루를 새로 깔고 절단 시정각기 자체 일체를 설치해 중학생 천진불들과 불자 교직원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부산 범어사가 건립한 종립 해동중은 60여 년간 청소년들에게 불심을 증진시키고, 수계제자로 키우는 등 천진불 양성 1번지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한 수많은 불자들이 우리나라 전역 사회 각 계각중에서 불자로서 모범이 되며 활발한 신행 및 포교활동을 통해 헌신하고 있다. 현재 해동중 법당에서는 불자 교

직원과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신행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다. 아침예불과 매주 목요일 ‘선정의 시간’, 월 1회 교직원 법회와 함께 수련법회, 매년 12월 3일 졸업생을 대상으로 수계법회를 봉행하는데 매년 60~70%의 학생들이 오계를 수지하고 있다. 또 파라미터활동을 통해 신입생 환영대회, 거리환경 보존캠페인, 1문화재 1지킴이, 문화탐방, 진로캠프, 템플스테이, 종립학교 간부수련회 등 즐겁고 유익한 신행활동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해동관음회에서는 연 8회 교리강좌 및 법회를 개최하고, 봉축법회, 성도재일법회, 야외법회 등으로 불법을 전하고 있다. 제1회 전국불교교리경시대회에서는 중학생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청소년 포교의 최전방인 종립학교가 앞으로 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부처님 봉안과 법당 불사에 더 많은 어른 불자들과 스님, 사찰, 종단의 도움이 절실하다. (051)400-2313

박지원 기자

김前 대통령 49재

김해 정토원, 봉행

김대중 前 대통령의 49재가 김해 정토원(원장 선진규)에서 10월 5일 봉행됐다.

이날 법회는 선진규 원장의 개회 인사를 시작으로 김해사암연합회(회장 지현) 스님들의 권공 축원 법문 관육 회향 등이 여법하게 봉행됐다. 선진규 원장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남북통일의 염원을 몸소 실천한 김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고 명복을 빌며 불교계가 나서 동서화합을 실천하고자 한다”며 “김대중 前 대통령의 극락왕생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토원은 故 노무현 前 대통령의 49재 등을 봉행했다. 또, 8월 18일 김前 대통령 서거 후에는 매일 조석으로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기도를 올렸다.

청은 경남남부지사장

천년고찰 · 현대 시설 조화이뤄

선찰대본산 범어사 문화재주변정비 시작

천년고찰 범어사가 달라지고 있다. 부산 범어사(주지 정어)는 ‘범어사 종합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최근 경내 선원, 종환안내소, 해우소 등 문화재주변정비를 마쳤다.

2013년까지 총 200여원을 투입해 범어사가 진행 중인 범어사 종합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정비사업은 1월 23일부터 10월 10일까지 부산시 지원금 4억원과 불교문화사업단 1억 8000만원, 범어사 자부담금 2억 7000만원 등 8억 5000만원 예산으로 집행됐다.

이번에 증축한 건물은 휴휴정사 앞 81.57㎡ 지하 1층, 지상 1층 등 2층 규모의 해우소, 288㎡의 지하 1층, 지상 1층 등 2층 규모로 누각과 해우소, 사위시설 등을 갖춘 선원, 범어사



범어사 종합안내소 준공을 축하하며 주지 정어 스님(가운데) 등이 테이프 커팅하는 모습.

입구 종합관리안내소 등이다. 정어 스님은 “이번에 증축한 해우소와 종환안내소는 현대적 시설을 전통 건축양식과 적절히 병합해 천년고찰의 아름다움과 어울려 조화를 이루고 있다”며 “범어사를 찾는 방문객부터 신도들과 스님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제5회 법계고시 시행 최종공고 [창종 7주년 기념 사암 및 종도 모집]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법계고시를 중법에 의거 (제 5회 법계고시)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대선, 중덕 및 대덕, 중덕 및 중사, 대중사 품수를 응할 중단내 대덕큰스님은 소정의 절차를 기간 내에 이행하시어 법계고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시명 : 제5회 대한불교전통조계종 법계 고시

일시 : 2553(2009)년 10월 22일(목요일) 오후 2시

장소 : 경북 칠곡군 석적면 포남리 부도사

- 금년도 법계고시는 호계원 부도사에서 시행합니다.
- 사암 및 종도 모집하며 10월 중에만 입종비 없음.
- 임원 간부 소임을 맡을 분 환영합니다.

- 대선 및 중덕 대상자 -

- (1) 구족계 수지한 비구, 비구니
- (2) 승남 5년이상 (대선)
- (3) 승남 10년이상 (중덕)

- 대덕 및 중덕 대상자 -

- (1) 구족계 수지한 비구, 비구니 (중덕 및 대선 수지자)
- (2) 승남 20년이상 (대덕)
- (3) 승남 25년이상 (중덕)

- 중사 대상자 -

- (1) 법남 30년 이상.
- (2) 중덕 법계 5년이상

- 대중사 대상자 -

- (1) 법남 35년이상
- (2) 중사 법계 5년이상

- 대승정 대상자 -

- (1) 법남 40년이상
- (2) 대중사 법계 5년이상

◇ 법계신청 구비서류

- (1) 법계신청서 1부

◇ 사암 등록신청 구비서류

- (1) 등록신청서 1부

※ 입종비 없음

■ 신청마감 : 불기 2553년 10월 20일 (화요일) 오후 5시

■ 문의전화 : 054)325-0400, 010-6306-0082

불기2553년 10월 8일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호계원 법계 고시 위원회

위원장 일파 · 호계원장 현덕